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이야기의 재건 4: 다중구조, 이것 또는 저것

Reconstruction of Story 4: Multi-Structure, Ici et Ailleurs

2017. 4. 12. – 5. 20.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2016. 6. 8. - 7. 23.

이야기의 재건 2 : 던컨 캠벨, 오톨리스 그룹,
그리고 와엘 샤키
2016. 8. 10. - 9. 11.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2016. 11. 30. - 2017. 2. 26.

이야기의 재건 4 : 다중구조, 이것 또는 저것
2017. 4. 12. - 5. 20.

이야기의 재건 5 : 폴리포니, 가상의 나
2017. 6. - 7. (예정)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8 June 2016 - 23 July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2 :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
10 August 2016 - 11 September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30 November 2016 - 26 February 2017

Reconstruction of Story 4 :
Multi-Structure, Ici et Ailleurs
12 April 2017 - 20 May 2017

Reconstruction of Story 5 :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June - July 2017 (TBA)

목차

서문	4
상영시간표	8
<u>난니 모레티</u>	10
좋은 꿈	10
4월	11
빨간 비둘기	12
나의 즐거운 일기	13
악어	14
<u>알랭 레네</u>	15
스모킹	15
노스모킹	15
<u>홍상수</u>	16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6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17
밤의 해변에서 혼자	18

Contents

Introduction	6
Screening Schedule	9
<u>Nanni Moretti</u>	10
Sogni d'Oro	10
Aprile	11
Palombella Rossa	12
Caro Diario	13
Il Caimano	14
<u>Alain Resnais</u>	15
Smoking	15
No Smoking	15
<u>Hong Sang-soo</u>	16
Right Now, Wrong Then	16
Yourself and Yours	17
On the Beach at Night Alone	18

〈이야기의 재건4〉는 삶과 이야기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곧 영화적 서사를 만들어내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누군가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시간을 인식하는 존재인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결과물처럼 여긴다면, 사건들의 집합체인 이야기 그 자체는 정의내릴 수 없는 미스터리로 다가온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이야기하기 위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순간 그 사건이 지닌 불완전성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이 곧 영화적 서사를 탄생 시키기도 한다.

질 들뤼즈는 알랭 레네의 영화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괴물 같고 혼란스러우며 창조적인 정신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감정이란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순환하는 동시에 끝없이 변형되며 생각은 그것들에 부응하는 비선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알랭 레네의 영화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정신의 메커니즘을 재현해왔고 그 정점에 〈스모킹/노스모킹〉이 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초석을 세운 쇠렌 키르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익명의 저자를 가장해 글을 쓰면서 독자들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읽으면서 독자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길 원했던 것처럼, 알랭 레네의 영화 또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세계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개체성이 진리라는 키르케고르의 생각처럼, 개체성이란 모든 사건발생의 열쇠이며 비극의 출발일 수도 있다.

난니 모레티는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말하기 위해 거의 모든 영화에 자신이 직접 등장한다. 〈비앙카〉(1984)의 수학교수 미켈레, 〈빨간 비둘기〉(1989)의 공산당 국회위원이자 수구선수인 미켈레, 〈미사는 끝났다〉(1985)의 가톨릭 신부처럼 자신과 다른 인물을 연기할 때도, 또는 〈좋은 꿈〉(1981), 〈4월〉(1998), 〈나의 즐거운 일기〉(1993)에서처럼 영화감독의 모습으로 나올 때에도 언제나 난니 모레티 그 자신의 모습으로 보인다. 〈좋은 꿈〉에서 영화감독인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바라보거나, 〈빨간 비둘기〉에서 ‘왜 나는 너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이어야 하는지’를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것처럼, 그의 영화는 이탈리아 사회, 정치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개체로서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태도로 구성된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물은 시대적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사는 극적 상황에 놓인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담론의 형태를 띤다. 아이러니는 자연스럽게 희극(풍자)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언어와 사고의 행태를 지적하는 그의 영화는 그가 꿈꾸는 다음 영화에 대해 뜬금없이 말하거나 그의 머릿속에서 작업 중인 시나리오 속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리석은 통념과 싸우는 자아의 도덕적 성장영화와 같은 난니 모레티의 영화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인간의 나쁜 부분들을 비판하지만 달콤한 패스트리를 좋아하고 신발 수집광이기도 한 모레티 자신의 가장 사적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주관적 관점을 객관적 진실처럼 포장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2014)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도착했던 모든 편지들을 모아 읽다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바람에 편지들이 흩어지면서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이렇듯 그의 영화에서는 발생하는 일들의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일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야기는 이 가변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반복되어 진행된다. 알랭 레네의 〈스모킹/노스모킹〉이 양자택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진행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면 홍상수의 영화는 인물들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이야기하는 화자로서 이야기의 모호함을 전달한다. 난니 모레티가 첨예한 이탈리아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인물들의 담론 속에 통념의 문제들을 던져놓는다면, 홍상수는 인물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공적 의미의 역사성을 제거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인물들은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 인물들은 그들 정서 속에 내재된 매우 불안하고 비논리적인 시간 속에서 순환한다.

이야기하는 방식도 인물의 욕망에 대한 해석도 전혀 다르지만 〈이야기의 재건4〉에서 상영될 세 감독의 영화들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는 세 감독의 고유한 방식들은 각자 인간의 욕망 또는 자아와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물로 보인다.



난니 모레티, 〈악어〉
Nanni Moretti, *Il Caimano*



알랭 레네, 〈노스모킹〉
Alain Resnais, *No Smoking*

Introduction

Reconstruction of Story 4 introduces films where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stories directly translate into cinematic narratives. When incidents in someone's life are deemed accidental outcomes of the consciousness and actions of humans, who are beings cognizant of time, then stories, which are aggregates of incidents, themselves strike one as indefinable mysteries. Just as one realizes the incompleteness even of actual events the moment one recalls them in order to recount them, questions about the act of telling stories give birth to cinematic narratives as well.

Seeing Alain Resnais's movies as originating from his interest in things that occur in the head, or the monstrous, chaotic, and creative mechanisms of the mind, Gilles Deleuze has stated that emotions simultaneously circulate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change endlessly and that thoughts constitute non-linear time that responds to feelings. Resnais's works have represented the mental mechanisms where the stories of ordinary lives occur and recur since the 1980s, at the apex of which are *Smoking/No Smoking*. Writing under a pseudonym, Søren Kierkegaard, wh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modern existentialism, hoped in *Enten-Eller* (*Either/Or*) that readers would view from their own thoughts while reading only the literal meanings. Likewise, Resnais's films only show aspects of the world, which can develop in either this or that way. As with Kierkegaard's idea that individuality is the truth, individuality may be the key to the occurrence of all incidents and the starting point of tragedy as well.

In order to speak only of what he knows, Nanni Moretti has starred in nearly all of his films. Even when he plays the roles of characters besides himself such as the mathematics professor Michele in *Bianca* (1984), legislator from the Italian Communist Party and water polo player Michele in *Palombella Rossa* (*Red Wood Pigeon*, 1989), and

Catholic priest in *La messa è finita* (*The Mass Is Ended*, 1985) and even when he appears as his own self, a movie director, in works such as *Sogni d'Oro* (*Sweet Dreams*, 1981), *Aprile* (*April*, 1998), and *Caro Diario* (*Dear Diary*, 1993), he always seems to be none other than Moretti. Just as he views his film director self scornfully in *Sogni d'Oro* and painfully screams, "We are the same and yet different, we are different and yet the same. Mama! Come get me!" in *Palombella Rossa*, his works are constructed based on an attitude of facing his own contradictions as an individual being while criticizing the foolishness of Italian society and politics. Because all personages including himself can become objects of the satire of the times, the lines, instead of representing the psychology of characters placed in dramatic situations, take on the form of discourses reflecting their thoughts. Just as irony naturally takes on the form of comedy, his movies, which point out forms of language and thought, unexpectedly speak of the next works that he is envisioning or show scenes from the scenarios that he is working out in his mind. Like movies about the moral growth of the self struggling against foolish conventional ideas, Moretti's works criticize human weaknesses that can turn people into monsters depending on momentary choices yet also reveal in their entirety the most private aspects of the director himself, who is fond of sweet pastries and a shoe collector. As such, they do not fall into the danger of packaging subjective viewpoints as objective truths.

In director Hong Sang-soo's film *Hill of Freedom* (2014), the protagonist holds and reads all letters that have arrived during her absence, only to drop them unintentionally to the floor, thus scattering them and confounding their temporal order. As in this example, the temporal sequence of the incidents that occur is not important in his movies. Everything can happen in diverse directions at once, and stories, as if to prove this variability, return to certain points in time and develop

repeatedly. If Alain Resnais's *Smoking/No Smoking* show the mechanisms of event progression that differ according to either/or choices, Hong Sang-soo's works convey the ambiguity of tales where characters are both parties involved in incidents and narrators of stories. If Nanni Moretti casts problems with conventional wisdom in his personages' discourses while directly criticizing the acute political reality of Italy, Hong Sang-soo removes historicity in the official sense that can be endowed on characters. Figures in director Hong Sang-soo's films are each trapped in their time to the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figure out the eras in which they are living. They circulate in very unstable and illogical time that is inherent in their emotions.

Though they differ completely from one another in the ways of telling tales and interpretations of characters' desires, films by the three directors to be screened in *Reconstruction of Story 4* depict lives that can develop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ctions and thoughts of characters who create stories. The unique ways in which these three directors study and reconstruct tales of lives instead of speaking of lives seem to be the fruits of their respective insights into human desire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society.



홍상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Hong Sang-soo, *Yourself and Yours*

상영 시간표

2017. 4. 12. – 5. 20.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 12 19:00 ⑫ 난니 모레티 4월 (78min)	13 15:00 ⑲ 홍상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86min)	14 15:00 ⑫ 난니 모레티 빨간 비둘기 (89min)	15 15:00 ⑫ 난니 모레티 나의 즐거운 일기 (100min)	16 15:00 ⑲ 홍상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21min)
19 18:30 ⑫ 난니 모레티 좋은 꿈 (105min)	20 15:00 ⑲ 홍상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21min)	21 15:00 ⑮ 난니 모레티 악어 (112min)	22 19:00 ⑲ 홍상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86min)	23 15:00 ⑫ 난니 모레티 4월 (78min)
26 14:00 ⑫ 알랭 레네 스모킹 (140min) 18:00 ⑫ 알랭 레네 노스모킹 (145min)	27 15:00 ⑫ 난니 모레티 나의 즐거운 일기 (100min)	28 15:00 ⑲ 홍상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21min)	29 15:00 ⑫ 난니 모레티 빨간 비둘기 (89min)	30
5. 3 석가탄신일 15:00 ⑥ 가정의 달 특별상영	4 15:00 ⑫ 난니 모레티 좋은 꿈 (105min)	5 어린이날 15:00 ⑥ 가정의 달 특별상영	6 14:00 ⑫ 알랭 레네 스모킹 (140min) 18:00 ⑫ 알랭 레네 노스모킹 (145min)	7
10 15:00 ⑲ 홍상수 밤의 해변에서 혼자 (101min) 19:00 ⑫ 난니 모레티 빨간 비둘기 (89min)	11 15:00 ⑫ 난니 모레티 나의 즐거운 일기 (100min)	12 15:00 ⑫ 알랭 레네 스모킹 (140min)	13 15:00 ⑫ 난니 모레티 4월 (78min) 18:30 ⑲ 홍상수 밤의 해변에서 혼자 (101min)	14 15:00 ⑮ 난니 모레티 악어 (112min)
17 18:00 ⑫ 알랭 레네 노스모킹 (145min)	18 15:00 ⑲ 홍상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86min)	19 15:00 ⑲ 홍상수 밤의 해변에서 혼자 (101min)	20 15:00 ⑮ 난니 모레티 악어 (112min) 18:30 ⑫ 난니 모레티 좋은 꿈 (105min)	

등급
⑥ 전체 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⑲ 19세 이상 관람가

Screening Schedule

12 April – 20 May 2017

Wed.	Thu.	Fri.	Sat.	Sun.
12 April 19:00 ⑫ Nanni Moretti Aprile (78min)	13 15:00 ⑲ Hong Sang-soo Yourself and Yours (86min)	14 15:00 ⑫ Nanni Moretti Palombella Rossa (89min)	15 15:00 ⑫ Nanni Moretti Caro Diario (100min)	16 15:00 ⑲ Hong Sang-soo Right Now, Wrong Then (121min)
19 18:30 ⑫ Nanni Moretti Sogni d'Oro (105min)	20 15:00 ⑲ Hong Sang-soo Right Now, Wrong Then (121min)	21 15:00 ⑮ Nanni Moretti Il Caimano (112min)	22 19:00 ⑲ Hong Sang-soo Yourself and Yours (86min)	23 15:00 ⑫ Nanni Moretti Aprile (78min)
26 14:00 ⑫ Alain Resnais Smoking (140min) 18:00 ⑫ Alain Resnais No Smoking (145min)	27 15:00 ⑫ Nanni Moretti Caro Diario (100min)	28 15:00 ⑲ Hong Sang-soo Right Now, Wrong Then (121min)	29 15:00 ⑫ Nanni Moretti Palombella Rossa (89min)	30
3 May Buddha's Birthday 15:00 ⑥ Special Screening	4 15:00 ⑫ Nanni Moretti Sogni d'Oro (105min)	5 Children's Day 15:00 ⑥ Special Screening	6 14:00 ⑫ Alain Resnais Smoking (140min) 18:00 ⑫ Alain Resnais No Smoking (145min)	7
10 15:00 ⑲ Hong Sang-soo On the Beach at Night Alone (101min) 19:00 ⑫ Nanni Moretti Palombella Rossa (89min)	11 15:00 ⑫ Nanni Moretti Caro Diario (100min)	12 15:00 ⑫ Alain Resnais Smoking (140min)	13 15:00 ⑫ Nanni Moretti Aprile (78min) 18:30 ⑲ Hong Sang-soo On the Beach at Night Alone (101min)	14 15:00 ⑮ Nanni Moretti Il Caimano (112min)
17 18:00 ⑫ Alain Resnais No Smoking (145min)	18 15:00 ⑲ Hong Sang-soo Yourself and Yours (86min)	19 15:00 ⑲ Hong Sang-soo On the Beach at Night Alone (101min)	20 15:00 ⑮ Nanni Moretti Il Caimano (112min) 18:30 ⑫ Nanni Moretti Sogni d'Oro (105min)	

Ratings
⑥ General
⑫ Under 12 not admitted
⑮ Under 15 not admitted
⑲ Under 19 not admitted

좋은 꿈

난니 모레티 | 이탈리아 | 1981 | 105min | 35mm | Color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젊은 영화감독 미켈레는 자신의 영화가 상영된 후 관객과의 대화를 곳곳에서 진행하면서 다음 영화 〈프로이트의 어머니〉의 제작을 준비한다.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혼란스러운 단계에서 순수한 창작자이자 자본과 대중의 관심을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감독인 미켈레의 모순된 두 개의 자아가 갈등을 빚는다. 미켈레의 머리 속에서 이리저리 쓰여지는 장면들과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그의 개인적 욕망 등이 혼란스럽게 교차하고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자책한다.

Sogni d'Oro

Nanni Moretti | Italy | 1981 | 105min | 35mm | Color

A young movie director who is gaining fame, Michele holds guest visits in diverse places after screenings of his latest film while preparing to produce his next work, *La mamma di Freud* (*Freud's Mother*). In the chaotic stage of devising a scenario, the two contradictory selves of Michele, a pure creator and a movie director who can survive only by winning the interest of both capital and the public, clash against each other. As scenes that write themselves in the protagonist's mind,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in contemporary Italy, and his personal desires crisscross in a confusing manner, Michele reproaches himself for turning into a monster.



4월

난니 모레티 | 이탈리아, 프랑스 | 1998 | 78min | 35mm | Color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영화감독인 난니 모레티 개인의 삶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의 모든 영화가 그렇듯 개인의 삶은 그 시대의 정치적 은유처럼 비친다. 1994년 3월 28일 중도우파연합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선거에서 이긴 후부터 1997년 8월까지의 여정 속에서 모레티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면서 1950년대 트로츠키주의자인 요리사에 관한 뮤지컬 영화 제작을 시도한다. 베를루스코니가 선거에서 참패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그의 아들이 태어난다. 가장 사적인 삶의 에피소드와 정치적 담론이 치열하게 만나는 서사구조의 좋은 예다.

Aprile

Nanni Moretti | Italy, France | 1998 | 78min | 35mm | Color

The political situation in Italy and the personal life of Nanni Moretti, a film director, move together as if combined in a single body. As in his other works, individual lives are political metaphors of the age in this movie. In the trajectory from the electoral victory of Silvio Berlusconi of the center-right coalition on March 28, 1994 to August 1997, Moretti attempts to produce a musical film about a Trotskyist pastry chef during the 1950s while shooting a documentary film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in Italy. His son is born amidst Berlusconi's overwhelming defeat and the Communist Refoundation Party's unprecedented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s. As such, this work is a good example of a narrative structure where the most private life episodes and political discourses confront each other fiercely.



빨간 비둘기

난니 모레티 | 이탈리아, 프랑스 | 1989 | 89min | 35mm | Color

공산당 국회의원이자 수구선수인 미켈레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는다. 수구팀의 동료들이 입원 중인 그를 찾아오고, 수영장으로 간 미켈레는 동료들의 시합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다. 수구 경기 장면들은 사회정치적 상황의 은유처럼 미켈레의 어린 시절과 투쟁적이었던 청소년기, 공산당의 미래가 주제인 토론회에 참석했던 기억 등을 환기시킨다. 그의 기억상실증은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젊은 공산주의자였던 기억을 재구성하게 하며, 수구 경기의 마지막 패널티슛은 좌우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은유한다.

Palombella Rossa

Nanni Moretti | Italy, France | 1989 | 89min | 35mm | Color

An Italian legislator from the Italian Communist Party and a water polo player, Michele loses his memory due to a car accident. Fellow players on the water polo team visit him at the hospital, and the protagonist gradually regains his memory while watching them in water polo matches at swimming pools. Metaphors of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in the country, scenes of water polo games evoke Michele's childhood, rebellious adolescence, and memory of participating in a discussion on the future of the Italian Communist Party. Amnesia restructures the memories of the protagonist, at one time a young communist pondering on a better life, and the final penalty shot in the water polo match stands for the psychological state of people who must choose between the right and left wings.



나의 즐거운 일기

난니 모레티 | 이탈리아, 프랑스 | 1993 | 100min | 35mm | Color

세 개의 에피소드 〈베스파를 타고〉, 〈섬들〉, 〈의사들〉로 구성된 이 영화는 영화감독인 난니 모레티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우화적 일기와 같다. 〈베스파를 타고〉에서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미국 영화 〈헨리 연쇄살인범의 초상〉을 보기 위해 로마 시내를 베스파를 타고 달리는 모레티의 여정을 따라 로마라는 도시와 모레티 개인의 사소한 열망, 왜곡된 영화비평에 대한 통렬한 비판 등이 이어진다. 〈섬들〉에서 모레티는 다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친구인 제랄도와 함께 작업하기에 좋은 조용한 섬들을 찾아 나서지만 그의 여행은 결국 실패한다. 〈의사들〉은 실제로 림프선 종양으로 수술을 해야 했던 모레티 개인이 초기 증상인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던 경험담을 들려준다. 사소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선 사적인 여행일기 형식의 이 영화는 산업화 이후 이탈리아 사회의 많은 문제들, 논쟁적인 담론들 속에 담긴 아이러니를 유머를 통해 보여준다.



Caro Diario

Nanni Moretti | Italy, France | 1993 | 100min | 35mm | Color

Consisting of the three episodes of “In Vespa (On My Vespa)”, “Isole(Islands)” and “Medici (Doctors)”, this film is a fable-like diary that wholly reflects the life of Nanni Moretti, a film director. Following Moretti's trip across Rome on a Vespa to see the critically acclaimed American film *Henry: Portrait of a Serial Killer*, “In Vespa” presents the city, the director's miscellaneous personal desires, and biting critique of distorted film criticism. In “Isole” together with his friend Gerardo, Moretti sets out to find a quiet island suited to the task of penning the scenario for his next movie but fails in the end. “Medici” recounts his actual experience of having to go from one hospital to another to discover the causes of his itching, an early symptom of the lymphatic tumor that later required him to undergo surgery. In the form of a personal travel diary in search of answers to minor problems, this work shows through humor the many problems in Italy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nd the irony hidden in controversial discourses.

악어

난니 모레티 | 이탈리아, 프랑스 | 2006 | 112min | 35mm | Color

이탈리아 B급 영화의 개척자로 불리던 영화제작자 브루노 보노모는 잇단 흥행실패로 10년간 새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다 오랜만에 〈콜럼버스의 귀환〉이라는 새 영화의 제작을 도모한다. 그의 아내가 주연배우로 출연했던 저예산 B급 영화의 오마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무대로 향하던 브루노는 아이를 업고 온 한 젊은 여성 테레사가 건네는 시나리오를 받는다. 〈콜럼버스의 귀환〉은 촬영에 들어가게 되지만 연출을 맡은 감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결국 연출을 포기한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브루노의 아내마저 결별을 선언한다. 위기에 처한 브루노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테레사의 시나리오 〈악어〉를 대충 읽고 제작이 어렵지 않은 스릴러영화로 판단해 제작에 들어간다. 브루노는 아예 테레사에게 연출까지 의뢰한다. 실제로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된 소송, 재판과정을 그린 정치적 영화이자 테레사의 첫 장편영화인 〈악어〉의 촬영이 시작된다.

Il Caimano

Nanni Moretti | Italy, France | 2006 | 112min | 35mm | Color

Dubbed the pioneer of B movies in Italy, film producer Bruno Bonomo pursues the production of a new work titled *Il Ritorno di Cristoforo Colombo* (*The Return of Christopher Columbus*) after having been unable to do so for 10 years due to a series of box office failures. As he proceeds to the stage during a guest visit following the homage screening of a low-budget B movie starring his wife, Bruno is handed a scenario by Teresa, a young woman with a child on her back. Though the shooting of *Il Ritorno di Cristoforo Colombo* begins, the director ultimately gives up on the project, citing an insufficient budget. To add insult to injury, even Bruno's wife declares that she will leave him. Faced with a crisis, the producer chances upon and skims through Teresa's scenario for *Il Caimano*. Judging it to be a thriller that will not be difficult to create, Bruno initiates its production, even asking its author to serve as the director. Thus begins the shooting of *Il Caimano*, which is actually a political film recounting trials surrounding Italian prime minister Silvio Berlusconi's concealment of a slush fund as well as Teresa's first feature.



스모킹

알랭 레네 |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 1993 | 140min | 35mm | Color

노스모킹

알랭 레네 |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 1993 | 145min | 35mm | Color

영국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앨런 애크번의 희곡 〈은밀한 교류〉를 각색한 이 작품은 연극무대처럼 꾸며진 장면들로 구성된다. 영국 요크셔 지방의 한 마을 휴튼 버셀의 학교 교장인 토비 티스데일과 그의 아내 셀리아 티스데일, 토비의 친구인 마일스 콤스와 아내 로위나, 정원사 리오넬 헤플윅, 가정부 실비 벨이 주요 인물이며 이들은 모두 두 배우 피에르 아르디티와 사빈느 아제마가 연기한다. 〈죽도록 사랑하리〉(1984)부터 알랭 레네의 페르소나처럼 거의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이 두 배우의 연기가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셀리아와 가정부 실비가 봄맞이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날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다리를 찾으러 정원으로 나온 셀리아의 눈에 정원 테이블에 놓인 담뱃갑이 들어온다. 셀리아가 담뱃갑을 집어 담배를 피우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은 다르게 전개된다. 셀리아가 담배를 피우면 5초 후 정원사 리오넬이 들어오고, 셀리아가 담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다리를 꺼내기 위해 움직인다면 5초 후 토비의 친구 마일스가 방문한다. 이렇게 사소한 결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삶의 가능한 이야기가 평행우주 속 세계처럼 펼쳐진다.



Smoking

Alain Resnais | Switzerland, Italy, France | 1993 | 140min | 35mm | Color

No Smoking

Alain Resnais | Switzerland, Italy, France | 1993 | 145min | 35mm | Color

Adaptations of *Intimate Exchanges*, a play by British playwright and director Alan Ayckbourn, these interrelated films consist of scenes resembling theater stages. The main characters are Toby Teasdale, a schoolmaster in Hutton Buscel, a village in Yorkshire, England, his wife Célia Teasdale, Toby's friend Miles Coombes and his wife Rowena, gardener Lionel Hepplewick, and housekeeper Sylvie Bell. They are all played by Pierre Arditi and Sabine Azéma. Alain Resnais' personas in nearly all of his movies from *L'Amour à mort* (*Love unto Death*, 1984), these two performers lead the plot. The tale begins on the day that Célia and her housekeeper Sylvie decide to do spring cleaning. Having come out to the garden in search of a ladder, the mistress of the house spots a cigarette pack on the garden table. The plot then proceed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she picks up the packet and smokes a cigarette. If Célia smokes, gardener Lionel will enter 5 seconds later. If she overcomes the temptation of tobacco and moves to take out the ladder, Toby's friend Miles will pay a visit in 5 seconds. Possible stories of life that differ according to minor decisions thus unfold like a world in a parallel universe.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 한국 | 2015 | 121min | DCP | Color

실수로 영화감독 함춘수는 수원에 하루 일찍 내려간다. 다음날 특강을 기다리며 들른 복원된 궁궐에서 윤희정이라는 화가를 만난다. 둘은 윤의 작업실에 가서 윤의 그림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회에다 소주를 많이 마신다. 거기서 가까워지는 두 사람. 다른 카페로 이동한 두 사람은 술을 더 마신다. 거기서 누군가의 질문 때문에 함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할 수 없이 말하게 되고, 윤은 함에게 많이 실망하게 된다. 이런 비슷한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이어진다. 여자가 더 목소리가 위축되어 있고, 몸도 굽어져 있다. 둘이 돌아다니는 데는 비슷한데, 여기선 남자가 웃도 벗고 그런다.

Right Now, Wrong Then

Hong Sang-soo | Korea | 2015 | 121min | DCP | Color

By mistake, director Ham Chunsu goes away to Suwon a day early. With time to kill before his lecture the next day, Chunsu stops by a restored, old palace and meets an artist named Yoon Heejeung. Together, they go to Heejeung's workshop to look at her paintings, have Sushi with Soju for dinner, and get close. Later, they go to another café and have more drinks with Heejeung's acquaintances. When asked if he is married, Chunsu is forced to reveal the fact that he is, and Heejeung gets deeply disappointed... In the second part of the film, a similar "meeting and parting story" unfolds. Here, the woman's voice seems intimidated and her body crouched. The man and the woman go about to the same places, but this time the man strips himself and what not.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홍상수 | 한국 | 2016 | 86min | DCP | Color

화가인 영수는 오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영수는 여자 친구인 민정이 어느 남자와 술을 마시다 크게 싸움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그날 밤 그 일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민정은 당분간 서로 보지 말자며 나가 버린다. 다음날부터 영수는 민정을 찾아 다니지만 민정을 만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그가 사는 연남동의 여기 저기를 민정 혹은 민정을 꼭 닮은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 영수는 민정을 찾아 헤매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데, 그게 세상과 싸우는 것이라 여기며, 민정 혹은 민정을 닮은 여자는 영수가 두렵게 상상하는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채 “한번도 만나지 못한 그 좋은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둘이 다시 만나는 날,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싸움을 멈추는데, 그게 너무 좋아 믿기가 힘들 수 있다.

Yourself and Yours

Hong Sang-soo | Korea | 2016 | 86min | DCP | Color

The mother of the painter Youngsoo is gravely ill. Youngsoo hears that his girlfriend Minjung drank with a man and fought with him. They argue that night, and Minjung goes out, saying they shouldn't see each other for some time. The next day, Youngsoo looks for her, but can't find her. Meanwhile, in Yeonnam where he lives, Minjung or some women who look identical to her go around meeting different men. Youngsoo wanders and fights with himself, which is the same as fighting with the world; while Minjung or the other women, resembling the image of her in his fears, wanders seeking the "good man" she's never met. One day they meet again, stop fighting, and it's so nice, it's hard to believe.



밤의 해변에서 혼자

홍상수 | 한국 | 2017 | 101min | DCP | Color

외국 어느 도시. 여배우인 영희는 한국에서 유부남과의 만남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다 포기하는 길을 택했고, 그게 자신의 순수한 감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여겼다. 그는 이곳으로 온다고 했지만, 영희는 그를 의심한다. 지인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같이 해변으로 놀러간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선배 언니에게 묻는다. “그 사람도 나처럼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의 강릉. 지인 몇 사람. 불편하고,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다. 초연한 척, 거친 척을 하는데 인기가 좋다. 혼자 남은 영희는 해변으로 놀러간다. 해변은 맘속의 것들이 생생하게 현현하는 곳이고,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곳이다. 사랑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어야 할까? 영희는 정말 알고 싶다.

On the Beach at Night Alone

Hong Sang-soo | Korea | 2017 | 101min | DCP | Color

A foreign city. The actress Younghee, stressed by a relationship with a married man in Korea, has given up everything, as the least courtesy she can show her sincere heart. He has said he'll join her, but she mistrusts him. She eats at an acquaintance's home and goes to the sea. She asks her friend, whom she thinks does not understand: "Is he missing me now, like I miss him?"

Gangneung, Korea. A few old friends. Things are awkward, they drink, and she decides to startle them. She acts aloof, then cruel, but they like it. Left alone, Younghee goes to the beach, where things inside her heart manifest themselves, then fade like mist. How important is love in one's life? Younghee wants to know.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am – 6pm
수, 토: 10am – 9pm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목, 금, 일: 10am – 6pm
수, 토: 10am – 9pm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 – 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 – 11pm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시네치타 루체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am – 6pm
Wed, Sat: 10am – 9pm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Thu, Fri, Sun: 10am – 6pm
Wed, Sat: 10am – 9pm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Wednesday &
Saturday from 6pm – 9pm

Parking

Daily Hours: 8am – 11pm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Collaborated with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di Seoul
Istituto Luce Cinecitt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 (Eng)



Italian Cultural Institute
주한이탈리아문화원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